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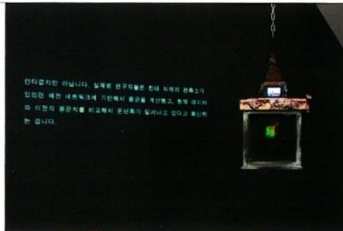
Preview

December, 2018 | By Editorial

preview



지용일 <이곳에서 저곳으로>



손여울 <데이터 깃발, 데이터 깃발을 위한 리서치>



(CAN YOU HEAR THE WIND BLOW)

뉴스, 리플리에게 전

**10.30-2019.2.24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** 요즘은 누구나 1인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뉴스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다. 이 전시는 뉴스를 생산, 유통, 소비하는 사회와 소통 구조를 되돌아보고, 요즘 같은 소통환경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움직이는 과정과 감각을 폭넓게 탐색하며, 새로운 소통 방법의 실험과 가능성을 연구한다. 김가람, 박경진, 손여울, 스코픽, 업체eobchae×류성실, 이다은, 이미혜, 이주원, 조영각, 지용일, 치명타, 프렌식아키텍처가 참여한다.

김중만 상처 난 거리 전

**11.3-2019.2.2 한미사진미술관** 김중만이 2008년부터 독방 곁에서 촬영한 나무 사진이 공개된다. 작가는 어느 날 인적 드문 길을 걷다가 땅가지고 교룡밭에 지친 나무를 마주했다. 그렇게 나무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고, 4년이 지나서야 카메라로 나무를 찍기 시작했다.



은숙 <Out of reach re-placing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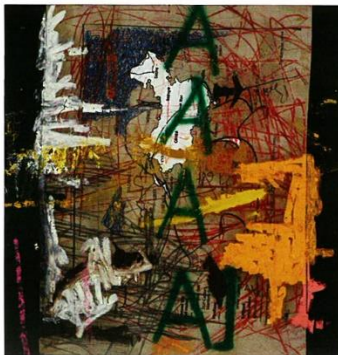
<이태왕전하장사의사진첩>



<국력구품도>

대한제국의 미술, 빛의 길을 꿈꾸다 전

**11.15-2019.2.6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** 그동안 쇠퇴한 미술로 평가됐던 대한제국시대(1897-1910)의 고공과 순종 시기 공중미술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. 김규진, 변관식, 안중식, 채용신 등 대한제국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 36명의 회화, 사진, 자수, 도자, 금속 공예 등 총 2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.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<대한 황제 초상사진>, <관분양 행락도>, <자수 매화병풍> 등을 놓치지 말 것.



(AAAA) 2018 캔버스, 린넨, 벨벳에 유화, 유화스틱과 흑연 165x170cm 사진: Mathew Hollow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제공: 국제갤러리

오스카 무리조\_Catalyst 전

**11.29-2019.1.6 국제갤러리** 콜롬비아에서 태어나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오스카 무리조(Oscar Murillo)의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린다. 무리조는 이상불라주 기법을 활용해 캔버스에 다양한 천 조각을 혼합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. 이번 전시에선 'Tight' 드로잉 시리즈와 'Catalyst' 연작을 포함, 회화, 대형 캔버스 설치, 비디오 등 작가가 지난 6년간 몰두해 온 작품세계를 총망라하는 대표작 20여 점을 선보인다.

생생화화 2018\_Hard-boiled & Toxic 전

**12.11-2019.3.10 경기도미술관** 개인의 관심사와 현대 사회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는 작가 10인(팀)이 모인다. 김나영 & 그레고리 마스, 김동현, 김은형, 박혜수, 송민철, 윤성지, 은숙, 전혜림, 홍기원, 홍남기가 사회의 불완전한 이면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재현하거나 재구성한다. 각기 다른 관점과 태도로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각 작가의 작품을 통해,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.